

개념 미술


概念美術, CONCEPTUAL ART

회화는 죽었다-행위, 사상, 아이디어 중시




개념미술-보이지 않는 시각미술

1960년대말, 모더니즘을 비평적으로 점검하려는 자의식적이고 엄격하게 이론화한 '개념미술'이 등장



미술의 비물질화: 행위, 사상, 아이디어를 예술로
플럭서스, 행위예술(퍼포먼스), 설치미술, 대지미술



작품이 의도하는 의미와 개념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식의
'의식의 전환'유도

플럭서스(FLUXUS)

플럭서스는 '변화', '움직임', '흐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

표현 형식에서는 처음에는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많은 미술 형식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희화적이고 개방적인 경향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주로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국제적 전위예술운동. 뉴욕과 북구의 수도인 여러 도시로 확산,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펼쳐짐

후대의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아트의 등장에 선도적 역할

대표 작가: 요셉 보이스, 게오르게 브레히트, 로베르 필라우, 요코 오노, 샬로트 무어맨, 백남준




요셉 보이스 (Beuys, Joseph, 1921-1986)

독일의 미술가

- 나치 공군에서 부조종사로 복무중 러시아의 크림해 상공에서 격추되어 그 지역의 타타르 원주민이 그를 구해준다.
펠트 천과 기름덩어리를 사용해 그를 구했다는 사실이 일종의 징크스같이 떠나지 않아 그 재료는 후에도 계속해서 작품에 사용
- 혁명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 예술은 자본이다.



오노 요코 [소야양자(小野洋子), Yoko Ono, 1933.2.18~]

일본 출신의 반전운동가·여성운동가·전위예술가. 

1960년대 국제적 전위예술운동인 플럭서스에 참여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는 여러 작품, 다양한 반전·여성운동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Nelson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해 세운 전승기념비를 흰 천으로 감싼 '포장 이벤트'(1967), 남자들의 엉덩이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영화 《궁둥이》(1967), 레넌과 함께 침대 위에서 벌인 '평화를 위한 침대시위'(Bed In For Peace, 1969)

행위예술 '컷 피스'(Cut Piece)



▲ 컷피스 공연중인 오노요코 관객이
오노요코의 옷을 자르고 있다



▲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에서 '전쟁종식선언' 오노요코와 함께 "당신
이 원한다면, 전쟁은 끝난다 War is over!" 선언하는 일본인들

1964년 전쟁 반대를 호소하며 전라가 될 때까지 사람
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조금씩 잘라가도록 한 공연



백남준(白南準, 1932~2006)

한국출생 동경대학 미학, 미술사학과를 졸업, 1962년 플럭서스에 창립멤버로 가담, 행위음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

1963년, 대중적 우상인 텔레비전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전위적 전시를 통해 비디오예술의 첫 탄생을 알리는 전시회를 개최, 비디오조각과 설치, 다큐멘터리, 이미지가공 등 비디오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실험을 수행

광범위한 설치 작업과 비디오 영상, 범세계적으로 TV망을 연결한 작업, 영화,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형성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 '다다익선'

몽고의 텐트(1993)



1993년 한국에서 플렉서스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을 때 출품되었던 작품, 독일 뮌스터 시립미술관에 영구 소장된 작품

높이 3m, 직경 5m의 이 텐트는 실제로 몽고에서 공수, 그 안에 요셉 보이스를 기념하는 비디오 프로젝션과 청동 부처들을 배치, 예술적 동료로써 교류했던 요셉 보이스를 추모

백남준과는 몽고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정신적 유대관계

대지미술 (Land Art ,earth art)

1. 시기

- 1960년대 후반 영국·독일 특히 미국에서 성행

2.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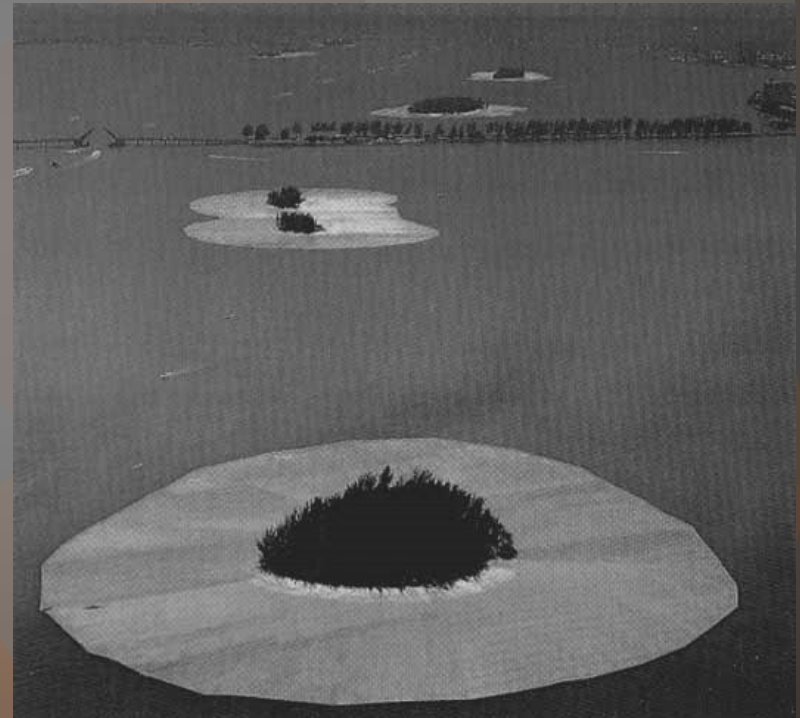
- 반상업적 원시 자연 상태 우주의 미와 힘을 칭송하는 일종의 낭만주의적 산물
- 종종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만들어지기도 함.
- 반화랑적 작업 현장이 곧 전시장
- 수집가나 화상들을 위해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거부 " 미술을 화랑과 문명사회로부터 떼어내어 자연 한 가운데 설치하려는" 미술운동
- 반영속적 보존의 어려워 모든 자료와 역사를 수록한 사진, 준비 데생, 텍스트, 필름 등도 작품으로 포함
- 작업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떠나 시골이나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작업을 하기도 함.

크리스토와 잔느 끌로드 (Christo and Jeanne-Claude) 부부

포장된 사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내재된 초현실주의적 신비감을 대지미술의 영역에 끌어 들임.

섬 둘러싸기(1980-83)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비스케인 베이에 있는 군도들을 핑크빛 천으로 둘러 싼 작품



로버트 스미슨 Spiral Jetty(1969)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변화

변형 혹은 소멸: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사진으로 기록

설치미술[設置美術, installation art]

메시지 전달을 위해 색다른 진열방
식으로 보여주는 미술.

설치미술은 비엔날레를 통해 주목.

소재가 다양하고 주제도 파격적이
며 시각·청각·후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 동원

여러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
실험성, 문명·사회·정치에 대해 풍
자와 비판

행위예술 [行爲藝術, performance]

개념미술의 관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육체 그 자체를 통하여 실행하는 예술행위.

1950년대 말에 해프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도

해프닝은 연극의 형태로서 극장보다는 야외나 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시연되며, 미리 기획된 연기나 즉흥적인 연기

1970년대 이후 많은 작가들이 행위예술을 시도 하여 이제 행위예술은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가장 보편적인 예술의 하나로 통용



프랑스의 아티스트 오를랑은 자신의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독특한 미술작업을 했다.

크리스 버든 [Chris Burden, 1946~]

미국의 잔혹 미술가. 1970년 대 초에는 자신의 몸에 위험을 주는 1인 공연을 하였고 자신의 팔에 총을 쏘게 하는 등 점차 위험 수위가 높은 작품을 발표하여 '**미술계의 악마**'라고 불린다.

주로 신상에 위험을 주는 1인 공연 작품 (캘리포니아대학 사물함에 몸을 구겨넣은 채 5일간 물만 마시며 지낸 것을 시작으로, 관객이 자기 몸에 핀을 꽂게 하거나, 콘크리트 계단에서 두 번에 날아서 내려오는 행위, 감전사) 을 발표.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지붕 위에 자신의 손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킴으로써 예수의 책형을 흉내낸 《책형 Transfixed》 (1974)을 발표

TV 생방송 프로그램에 뛰어들어 진행자를 인질로 잡는가 하면 총잡이에게 자신의 팔에 총을 쏘게 하여 총알이 근육을 관통하여 살점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행위예술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1965년 6월 7일 ~)

영국의 현대예술가, 악마의 자식(devil child), '무서운 아이(enfant terrible)', '컬트 조각가', '잔혹한 현대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최근 미술계뿐 아니라 대중매체의 스타로 떠오른 젊은 영국 아티스트 'YBA(Young British Artists)'

죽은 짐승을 재료 삼은 영국 현대미술계의 엽기 작가,
토막낸 동물의 시체를 유리상자 안에 넣어서 전시하는 그로테스크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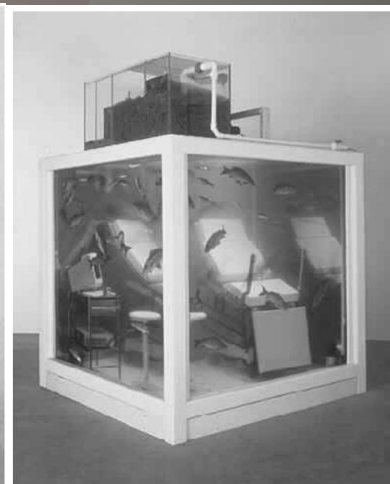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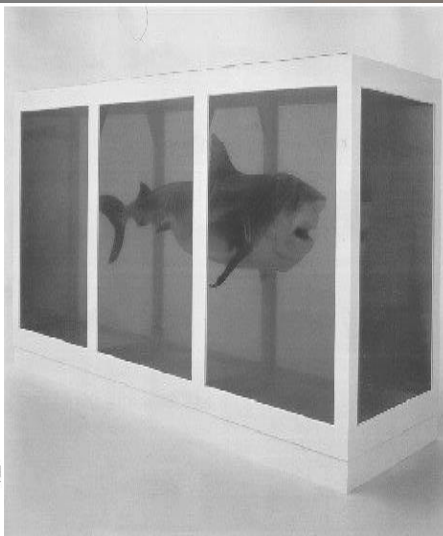
1991년 첫 전시회에서는 죽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를 가득 채운 유리 진열장에 넣어 전시한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을 선보여 논란

사치 갤러리를 소유한 광고 재벌 찰스 사치와 갤러리 화이트 큐브를 소유한 제이 조플링의 후원을 받아 미술 시장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상자 시리즈" - 데미언 허스트가 모은 외과용 도구들과 수백개의 각종 물건으로 채워진
병들이 선반에 가득 설치된 "캐비닛" 작업



"Love Lost(잃어버린 사랑)" - 수족관 같은 구조물 안에 의료 기기들과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설치

데미안 허스트-스핀 페인팅



"beautiful, kiss my fucking ass painting" - 돌아가는 원판에 캔버스를 올려 놓고 광택 페인트를 원심력을 이용해 뿌린 작품

아우디 A1 by 데미안 허스트 (Audi A1 by Damien Hirst)

art 2010/06/28 02:45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엘튼 존(Elton John)의 에이즈기금 "White Tie and Tiara Ball"을 위해 만든 아우디 A1(Audi A1)입니다. 허스트의 유명한 스핀 페인트(spin paint) 기술이 쓰였습니다. 결매에서 1.8미터 높이의 스핀페인트 그림과 함께 420,000유로로 팔립니다.

참고문헌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
&oid=003&aid=000319515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3195157)

501 위대한 화가, 스티븐 파딩, 박미훈 역, 마로니에 북스
일간 스포츠, 오노요코 아트 퍼포먼스 “ 컷피스” 2003.09.22
현대미술과 문화. 리사 필립스 외, 송미숙 역, 지안 출판사